

특정 () 도서관에서의 - 교수 학습 지원 활동
한국의 사례 ①

초등학교 졸업생 대출기록에 나타난 몇 가지 의미들

신희정*

초등학교에서는 흔히 '다독상'이란 이름으로 한정된 기간 내에 가장 많은 책을 읽은 학생을 가려내어 상을 주곤 한다. 도서실이 없었을 때 가장 손쉬운 독서관장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니었나 싶다. 이렇듯 읽은 책 권수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개인이 무엇을 읽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대출기록이란 한 사람의 성향을 나타내는 중요 기록 중의 하나이다. 엄연히 개인의 발자취인 것이다. 이러한 대출기록이 개인정보임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영화 '세븐'을 예로 들 수 있다. 영화에서는 형사들이 성경의 7가지 대원죄를 모방하여 살인을 하는 범인을 잡기 위해 대원죄를 소재로 한 책에 관한 목록을 뽑고, 그러한 책을 대출한 사람을 추적한다. 평소 FBI에서 '핵무기'나 '히틀러의 저서'를 빌려 읽는 사람을 비밀리에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던 형사가 은밀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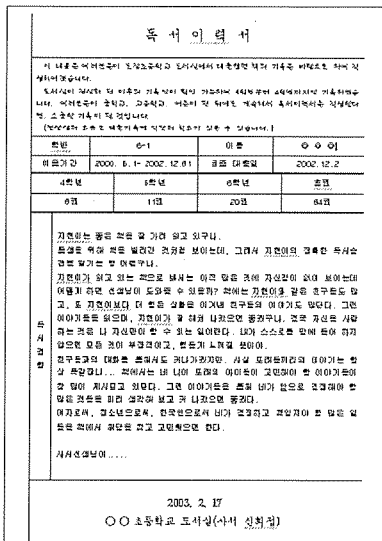
대출기록을 손에 넣고, 이것을 통해 윤곽조차 잡지 못했던 범인을 찾게 된다. 이것을 보더라도 한 사람의 독서기록이 얼마나 중요한 개인적인 정보이며, 개인에 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대출기록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송곡여고의 한 입시생이 대학 면접 때 독서기록을 제출하여 비슷한 점수대의 경쟁자들을 제치고 합격하였다는 이야기 전해주는데, 이것은 독서량과 꾸준한 독서 습관에 가산점을 준 것이라고 여겨진다. 현재는 독서기록을 바탕으로 어떤 결과를 끌어내고,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보편적인 평가 도구는 없다. 이에 필자가 근무했던 학교에서 시행했던 '독서이력서'를 근거로 대출통계를 내 보았고, 이 작업을 하면서 소수의 편중된 다독자 보다는 전교생의 평균 독서량을 높이는 것이 중

* 경기도 학교도서관협의회, jaszazz@hanmail.net

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단순한 대출량의 통계를 넘어서서 개인의 독서기록을 관리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경기도 D초등학교의 경우 1998년 3월 1일에 도서실을 마련하였으며, 1999년 7월에 사서가 파견되어 시설 및 전산화를 준비하여 2000년 5월 1일에 재개관을 하게 되었다. 그후 2001년 2월 1일에 본 사서가 인수인계 받으면서부터 매년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다른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던 독서이력서를 제공하였다. 이력서라는 단어가 설명하듯이 이것은 자신이 읽었던 독서 역사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6학년만을 대상으로 개인별로 재학생 도서실 대출기록을 뽑고, 그 대출기록을 근거로 하여 어떤 주제 분야의 책을 많이 읽고 있는지, 한가지 종류만을 읽는 편식을 보이지는 않는지, 학년에 맞는 적절한 독서수준을 갖고 있는지, 반복적으로 연체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독서주기가 어떤지를 판단하여 사서의 평가를 서술하여 주었다.



<그림 1> 독서이력서 소개

<표 1> 연도별 비교

	2001학년도 졸업생	2002학년도 졸업생
도서관 이용기간	2000.5.1~2001.1.31 (1년 8개월)	2000.5.1~2002.1.31 (2년 8개월)
졸업생수	169명	127명
독서자수	109(64.4%)	118(92.9%)
독서권수	1,220권 (연간 610권)	4,847권 (연간 1,615.6권)
개별평균	7.2권 (연간 3.6권)	38.1권 (연간 12.7권)

위 <표 1>에 따르면 2001학년도 졸업생의 독서율 64.4%에 비해 2002학년도 졸업생의 독서율은 92.9%로 상당한 차이로 증가하고 있다. 이수치는 졸업생이 재학 중 도서실을 최소한 1번 이상 이용한 기록이 있는 학생을 나타내는 것으로 90% 이상의 수치가 나온다는 것은 도서실 이용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즉, 책 읽기를 좋아하는 몇몇 학생들만 즐겨찾는 곳이 아니라 누구나 숙제를 위해서든 심심해서 책을 읽기 위해서든 도서실을 찾는다는 것이다. 독서권수에 있어서도 2001학년도에는 1,220권이었으나 2002학년도에는 4,847권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1년 8개월과 2년 8개월이라는 이용기간의 차이로 볼 수는 없다. 연간 평균율에서 나타나듯이 2001학년도에는 610권, 2002학년도에는 1,615.6권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서실의 이용기간이 길수록 도서실 이용습관이 대폭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2002학년도 졸업생 중 대출기록이 있는 92% 이외의 8%에 해당하는 9명의 학생을 살펴보면 기존 학생 중에서 도서실을 찾지 않은 학생은 3명이고, 특수아 1명, 6학년 때 전학 온 학생 5명으로 실질적으로는 97%에 해당하는 학생이 도

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9명 중 5명이 전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학생을 위해 수시로 이용 안내가 필요함을 절감할 수 있는데, 적절한 안내 방법으로는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 ① 주위 친구들이 전학생에게 학교 시설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방법
- ② 꾸러기 사서들에게 전학생에 대한 안내 책임을 맡겨서 전학생이 오면 꾸러기 사서들이 찾아가서 도서관 시설을 홍보하는 방법
- ③ 담임교사가 전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방법
- ④ 대학처럼 학교시설 이용안내에 따른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비치해서 전학생에게 안내하는 방법
- ⑤ 사서교사가 최소 1학기에 1회 정도의 도서관 이용 지도 수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법

〈표 2〉 2003년도 각 반별 통계

학반	6-1	6-2	6-3	6학년
재학생수	42명	43명	42명	127명
독서자수	39(92.8%)	39(90.6%)	40(95.2%)	118(92.9%)
독서권수	1,191권	1,511권	2,145권	4,847권
개별평균	28.3권	35.1권	51권	38.1권
최다독자	190권	301권	214권	301권

위 〈표 2〉를 보면 반별로 독서량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담임교사의 역할과 성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반 전체의 평균 독서량이 높은 학급의 경우 담임교사가 국어교육을 중시하고, 수시로 학급 아이들에게 필독도서를 권장하고 있었는데, 필독도서는 교과서에 실린 원작을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올해 2003학년도 6학년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교과관련 협력수업으로 인해 사회과목의 역사관련 추천도서

에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통일신라 시대의 각국별 특징을 역사적 유물을 통해 조사하게 하거나,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해 심도깊은 조사를 하게 하거나 지역별 유적에 대한 조사활동을 통해 백과사전과 역사서적의 활용도가 높아졌다. 이처럼 국어, 사회 과목에서는 작은 동기부여로도 눈에 띄는 독서습관의 향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은 추후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나와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초등학생의 남, 녀별 독서량을 비교해 보면 여학생이 개별평균에서 47권, 전체 3,391권으로 남학생 개별평균 26.4권, 전체 1,456권보다 많았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독서량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3〉 참조).

〈표 3〉 학년별 비교

학반	4학년		5학년		6학년	
	남	여	남	여	남	여
대출권수	132권	150권	780권	1,647권	544권	1,594권
	282권		2,427권		2,138권	

4학년, 5학년, 6학년 때의 각각의 통계를 통해 봤을 때, 4학년일 때의 독서량이 현저하게 적은데, 이것은 도서관을 개관한 첫 해라는 상황을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 해는 아이들에게도 탐색기간이고,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도 준비가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후 본격적인 도서관 이용시기인 5학년과 6학년 때의 대출기록에 있어서 크지는 않지만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성장발달에 따른 관심의 차이로 보아야 하는지, D교의 내부 행사에 따른 미묘한 환경의 영향인지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5학년보다는 6학

년일 때의 독서열이 떨어지는 것이 느껴지는데, 이는 중학교 진학을 대비한 방과후 활동의 증가와 또래들과의 활동 증가로 보인다.

D교의 경우 최다독자가 301권이고 개별 평균은 38.1권으로 개인 독서량에 있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분포도를 보면 100권 이상의 다독자가 15명으로 전학년의 11.8%로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92%의 학생들이 도서실을 이용한 해 보았으나 평균 이용책수인 38.1권(매년 12.7권)에서 나타나듯이 평균 1개월에 1권의 책을 읽는다는 것으로 도서실 활용도가 높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적으로 아이들이 1개월에 1권의 책을 읽는다는 사실은 그리 충분한 독서량은 아니지만,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 매년 권장도서량이나 다독의 상·중·하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공교육의 목적이 우수한 몇 명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학교도서관은 모든 행사나 기획에 있어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만을 위한 것보다는 모든 아이들이 책과 접할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 아이들의 능력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수준에 맞는 단계별 목표를 설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 통계는 그런 점에서 유용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장의 상황 파악을 통해 연차적 도서실의 이용 목표를 제안하고 아이들을 자극해야 한다.

딱딱한 통계 수치에 가려져 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독서력을 보면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의 대출 기록이 굉장히 소중한 개인의 정보이며, 성장기록이라는 점이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제2차 DLS(Digital Library

System)개발에 따라 공동목록과 중앙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현 상황에서는 더욱 더 이용자의 대출기록과 기본정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대출 기록 역시 아이들의 건강기록부와 다름없는 정서적이며, 지적인 건강 기록부인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우리 도서관인부터 되짚어보아야 할 부분이다. 또한 대출 반납 카운터를 아무에게나 맡기는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두 가지 꿈을 꾀다. 하나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진학할 때마다 아이들의 대출기록도 건강기록부와 마찬가지로 차곡차곡 쌓여 가는 것이다. 그리고 전학가는 아이들의 손에 건강기록부와 생활기록부, 그리고 대출기록이 함께 들려져서 새로운 학교로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또 하나의 꿈은 초등학생 아이들이 하나씩 책나무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있는 작은 책나무를 곁에 두고는 재미있게 읽은 책은 싱싱한 초록색 나뭇잎에 책 제목을 적어서 책나무에 달고, 지루했던 책은 칙칙한 회색 나뭇잎에 책 제목을 적어서 책나무에 다는 것이다. 한 달, 두 달 지나 1년이 되면 매년 내 책나무가 어떻게 잎을 피웠는지 보게 하는 거다. 잎이 풍성한 나무인지, 듬성듬성하게 잎을 달고 있는 초라한 나무인지, 또 싱싱한 초록색을 띤 건강한 나무인지, 시들어 가는 나뭇잎을 달고 있는 나무인지를 스스로 느껴보게 하는 거다. 그렇게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책나무를 소중하게 가꿀 줄 알게 된다면 우리들은 참 살맛 나는 세상을 살게 될 것 같다.